

#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역량,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 일상생활만족도 간 관계: 지각된 사회적 지지망 수준에 따른 다집단 분석

연은모<sup>1</sup>, 최효식<sup>2\*</sup>

<sup>1</sup>영남대학교 교양학부, <sup>2</sup>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Informatization Capability, Digital Informatization Accessibility and Life Satisfaction of Disabled People: Multigroup Analysi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Network

Eun Mo Yeon<sup>1</sup>, Hyo-Sik Choi<sup>2\*</sup>

<sup>1</sup>College of Basic Studies, Yeungnam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Education,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역량,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 일상생활만족도 간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망 수준에 따라 구조적 관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2017년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장애인 표본 데이터의 1,639명이 분석 대상이며,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방법과 다집단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디지털정보화역량은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 $\beta=.65$ ), 일상생활만족도( $\beta=.08$ )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 또한 일상생활만족도( $\beta=.44$ )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역량이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을 매개로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 $\beta=.29$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직접효과보다 간접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인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망 수준에 관계없이 디지털정보화역량,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은 일상생활만족도에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디지털정보화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여가생활, 문화생활,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참여 등이 가능한 접근성과 활용성이 높은 디지털 및 온라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practical intervention strategies by identifying the relationships among digital informatization capacity, level of digital informatization accessibility and life satisfaction of disabled people and to determine differences among these relationships depending on perceived level of social support networks. The participants were 1,639 disabled people from the 2017 digital information gap survey and the results, based 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multi-group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digital informatization capacity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he level of digital informatization accessibility( $\beta=.65$ ), and life satisfaction( $\beta=.08$ ). The level of digital informatization accessibility also has positive influence on life satisfaction( $\beta=.44$ ). Second, the analysis result of the mediated effects of digital informatization accessibility level between digital informatization capacity and life satisfaction was significant at a level ( $\beta=.29$ ) even greater than the direct effect of digital informatization capacity on life satisfaction. Third, digital information capacity and digital informatization accessibility have an influence on life satisfaction regardless of their perceived level of social support. The findings suggest that creating online environments where disabled people can enjoy leisure, culture, and social interaction with high accessibility and utility are as important as providing education for improving their digital informatization capacity.

**Keywords** : Persons with Disabilities, Digital Informatization Capacity, Digital Informatization Accessibility, Life Satisfaction, Social Support

\*Corresponding Author : Hyo-Sik Choi(Chuncheon National Univ. of Education)

email: s970218@cnu.ac.kr

Received August 13, 2019

Accepted December 6, 2019

Revised September 2, 2019

Published December 31, 2019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삶의 행복 및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편견 및 차별 경험 등으로 인해 삶의 행복 및 만족을 추구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연구들은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이에 기초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장애인의 심리적 요인, 가족관계, 문화생활 만족도, 사회활동참여 [1-4] 등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고도로 정보화된 사회에서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역량 및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이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디지털 및 온라인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특히 물리적 이동의 어려움과 사회적 배제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에게 [5]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은 삶의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역량,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 일상생활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 장애인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망 수준에 따라 이들 변인 간의 영향 관계에 차별적인 특징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정보화 사회에서 PC 및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정보화역량은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6-7]. 정보화 사회는 PC 및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하여 문화, 경제, 교육, 여가생활,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의 삶의 많은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정보화역량은 정보소의 계층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장노년층과 장애인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정보화 역량이 있는 노인들은 정보화 역량이 없는 노인들 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으며 [8], 장애인 대상 연구에서도 디지털정보화역량 수준이 높을수록 정책 활동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

디지털정보화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디지털정보화역량이 높을수록 PC 및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사회관계 및 정보공유 서비스, 생활 서비스, 정보생산 및 공유, 네트워킹, 사회참여, 경제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 [10]을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장애인의 문화생활 만족도, 사회활동참여, 대인관계만족도 [3-4, 11]가 삶의 만

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이 높을 때 PC 및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사회활동참여, 대인관계, 문화생활 등의 다양한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삶의 만족도를 느낄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장애인의 심리적 특성 및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12-13]. 특히 사회적 지지는 장애인의 심리적 특성 및 삶의 만족도에 조절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차별경험이 우울, 장애수용 수준이 외상 후 성장, 장애정체감이 대학생 활적응, 장애 정상정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14-17]에서 사회적 지지가 조절 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망 수준이 디지털정보화역량,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 일상생활만족도의 구조적 관계에서도 조절 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 간 차별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한 많은 연구들이 장애인의 심리적 요인, 가족관계, 문화생활 만족도, 사회활동참여 등의 변인과의 관계에 집중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 사회에서 중요한 디지털정보화역량,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과 일상생활만족도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다는 차별점이 있다. 둘째, 장애인 관련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는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디지털정보화역량,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 일상생활만족도의 구조적 관계에서도 나타나는지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차별점이 있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역량,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 일상생활만족도 간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망 수준에 따라 구조적 관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 1)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역량,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 일상생활만족도 간 구조적 관계를 확인한다.
- 2) 장애인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망 수준이 디지털정보화역량,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 일상생활만족도의 구조적 관계에서 조절 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확인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구조모형 검증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역량,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 일상생활만족도 간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망 수준에 따라 구조모형에 차별적 특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7년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의 장애인 표본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 2.2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 활용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7년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는 디지털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연간 추진 성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2017년 9월~12월까지 수집된 자료이며, 장애인 조사 모집단은 2017년 8월 1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전국의 만7~69세 장애인이다[10]. 본 연구에서는 2017년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의 장애인 대상 자료 중 디지털정보화역량,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 일상생활만족도, 지각된 사회적 지지망의 응답 자료가 있는 장애인 1,639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 2.3 연구 도구

#### 2.3.1 디지털정보화역량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역량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2017년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의 14문항을 사용하였다. PC 이용능력 관련 7문항과 모바일 디지털기기 이용능력 관련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이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하였다. 문항은 PC 이용능력 관련 '나는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할 수 있다', 모바일 디지털기기 이용능력 관련 '나는 모바일기기에서 문서나 자료(메모, 워드 등)를 작성할 수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10]. 신뢰도 지수인 Cronbach's  $\alpha$ 는 PC 이용능력 .97, 모바일 디지털기기 이용능력 .94로 확인되었다.

#### 2.3.2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2017년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의 52문항을 사용하였다. 최근 1년 간 디지털 기기(PC 및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8문항), 사회관계 및

정보공유 서비스(10문항), 생활 서비스(10문항), 정보생산·공유 정도(4문항), 네트워킹 정도(4문항), 사회참여 정도(8문항), 경제활동 정도(8문항)를 확인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이 '전혀 없다(1점)' ~ '자주 있다(4점)'로 응답하였다. 신뢰도 지수인 Cronbach's  $\alpha$ 는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86, 사회관계 및 정보공유 서비스 .89, 생활 서비스 .91, 정보생산·공유 정도 .86, 네트워킹 정도 .80, 사회참여 정도 .91, 경제활동 정도 .92로 확인되었다.

#### 2.3.3 일상생활만족도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2017년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의 8문항을 사용하였다. 여가 및 문화생활, 경제적 여건, 사회활동, 대인관계, 가족관계, 내가 하는 일, 신체 및 정신 건강, 정치 및 정부 활동과 관련된 만족도를 확인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점)' ~ '매우 만족(4점)'으로 응답하였다. 신뢰도 지수인 Cronbach's  $\alpha$ 는 .84로 확인되었다.

#### 2.3.4 사회적 지지망

장애인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2017년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의 11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장애인이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하였다. 문항은 '내 주변에는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 '내 친구는 나를 도우려 애쓴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10]. 신뢰도 지수인 Cronbach's  $\alpha$ 는 .92로 확인되었다.

### 2.4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분석 데이터인 2017년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는 MDIS(MicroData Integrated Service)에서 승인을 받은 후 자료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통계프로그램 SPSS 20.0, AMOS 20.0을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문제1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활용한 측정모형 검증, 측정모형 검증에 기초한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변인은 문항무리(item parceling) 방법을 사용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둘째, 연구문제2 검증을 위한 다집단 분석은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구조동일성 검증 순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모형의 모수 추정에는 최대우도 추정법을 선택하였으며,  $\chi^2$ , TLI, CFI, SRMR, RMSEA 값을 고려하여 모형의 적합도

를 판단하였다. 그리고 모형 간 차이 검증은  $\chi^2$  차이검증, CFI 차이 검증, RMSEA 차이검증을 함께 사용하였다 [18 재인용].

### 3. 연구결과

#### 3.1 연구 대상자의 특징

연구 대상자인 장애인의 성별은 남자 1,143명 (69.7%), 여자 496명(30.3%)이며, 연령은 10대 46명 (2.8%), 20대 62명(3.8%), 30대 166명(10.1%), 40대 364명(22.2%), 50대 594명(36.2%), 60대 이상 407명 (24.8%)이다. 장애등급은 1급 217명(13.2%), 2급 274명 (16.7%), 3급 339명(20.7%), 4급 275명(16.8%), 5급 284명(17.3%), 6급 250명(15.3%)이며, 최종학력은 초등학교 이하 215명(13.1%), 중졸(고등학교 중퇴 포함) 374명(22.8%), 고졸(대학교 중퇴 포함) 840명(51.3%), 대졸(전문대 포함) 이상 210명(12.8%)이다.

#### 3.2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검증

최대우도법에 기초한 모형 검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왜도, 첨도를 활용한 정규성 검증을 하였으며, 모든 측정변인이 왜도 3, 첨도 10을 넘지 않아 최대우도법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19].

Table 2의 측정변인 간의 상관행렬에 제시되어 있듯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639)

Variables	Category	N	%
Sex	Male	1,143	69.7
	Female	496	30.3
Age	10-19	46	2.8
	20-29	62	3.8
	30-39	166	10.1
	40-49	364	22.2
	50-59	594	36.2
	<60	407	24.8
Disability class	1st	217	13.2
	2nd	274	16.7
	3rd	339	20.7
	4th	275	16.8
	5th	284	17.3
	6th	250	15.3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215	13.1
	Middle school	374	22.8
	High school	840	51.3
	College graduate	210	12.8

이,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역량,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 일상생활만족도 간 정적 상관의 패턴이 확인되었다.

#### 3.3 측정모형 검증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역량,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 일상생활만족도에 대한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한 결과  $\chi^2(df=51, N=1,639)=830.214, p<.001, TLI=.920, CFI=.938, RMSEA=.097(90\% \text{ 신뢰구간}=.091\sim.102),$

Table 2. Pearson's correlation matrix, mean, standard deviation, skewness, and kurtosis of variables (N=1,63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2	.73**	1										
3	.62**	.53**	1									
4	.49**	.44**	.77**	1								
5	.52**	.46**	.75**	.73**	1							
6	.38**	.39**	.63**	.64**	.62**	1						
7	.43**	.41**	.63**	.66**	.66**	.70**	1					
8	.36**	.31**	.55**	.58**	.62**	.53**	.56**	1				
9	.34**	.28**	.56**	.61**	.67**	.52**	.62**	.68**	1			
10	.28**	.29**	.36**	.38**	.35**	.35**	.30**	.27**	.29**	1		
11	.27**	.30**	.35**	.35**	.33**	.32**	.32**	.23**	.24**	.61**	1	
12	.20**	.20**	.30**	.32**	.31**	.31**	.29**	.26**	.28**	.69**	.59**	1
M	2.10	2.62	2.10	1.80	1.77	1.77	2.04	1.39	1.47	2.44	2.80	2.47
SD	.96	.85	.67	.62	.68	.76	.74	.55	.63	.57	.53	.62
Sk	.30	-.19	.45	1.10	.79	.74	.54	1.66	1.36	-.03	-.31	.09
Ku	-1.19	-.81	-.55	.77	-.24	-.39	-.27	2.39	.87	-.11	.26	-.27

\* p<.05, \*\* p<.01, \*\*\* p<.001

1: PC usability, 2: Mobile usability 3: Searching, e-mail, 4: Social interaction and information sharing, 5: Life, 6: Knowledge-information sharing, 7: Networking, 8: Social engagement, 9: Economic activity, 10: Life satisfaction(1), 11: Life satisfaction(2), 12: Life satisfaction(3)

Table 3. Results of measurement model testing (N=1,639)

Latent variable	Measurement variable	b	S.E.	C.R.	$\beta$	AVE	CR
Digital informatization capacity	PC usability	1.00			.81	.78	.88
	Mobile usability	1.26	.04	29.44***	.90		
Level of digital informatization accessibility	Searching, e-mail	1.00			.85	.78	.96
	Social interaction and information sharing	.92	.02	44.60***	.86		
	Life	1.03	.02	45.54***	.87		
	Knowledge-information sharing	.99	.03	36.21***	.75		
	Networking	1.02	.03	38.94***	.79		
	Social engagement	.68	.02	32.84***	.70		
	Economic activity	.81	.02	34.82***	.73		
Life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1)	1.00			.85	.88	.95
	Life satisfaction(2)	.80	.03	29.78***	.73		
	Life satisfaction(3)	1.04	.03	32.10***	.80		

\* p<.05, \*\* p<.01, \*\*\* p<.001

SRMR=.042로 확인되어 타당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Table 3의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합성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 요인부하량에 기초한 집중타당도, 상관계수 제곱값과 AVE값 간의 값 차이 비교에 기초한 변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18 재인용].

### 3.4 구조모형 검증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역량,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 일상생활만족도 간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chi^2$  (df=51, N=1,639)=830.214, p<.001, TLI=.920, CFI=.938, RMSEA=.097(90% 신뢰구간=.091~.102), SRMR=.042의 타당한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Fig. 1에 제시되어 있듯이, 디지털정보화역량은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 $\beta=.65$ ), 일상생활만족도( $\beta=.08$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 또한 일상생활만족도( $\beta=.44$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부트스트랩(Bootstrap, 5,000회) 검증 결과,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역량이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을 매개로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 $\beta=.29$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4. Direct effects in the model

Path	b	SE	t	$\beta$
Digital informatization capacity →Level of digital informatization accessibility	.54	.02	23.85***	.65
Level of digital informatization accessibility→Life satisfaction	.37	.03	12.09***	.44
Digital informatization capacity →Life satisfaction	.05	.03	2.07*	.08

\* p<.05, \*\* p<.01, \*\*\* p<.001

Table 5. Indirect effects in the model

Path	b	$\beta$	Bias-corrected 95% CI
Digital informatization capacity →Level of digital informatization accessibility→Life satisfaction	.20***	.29	.17~.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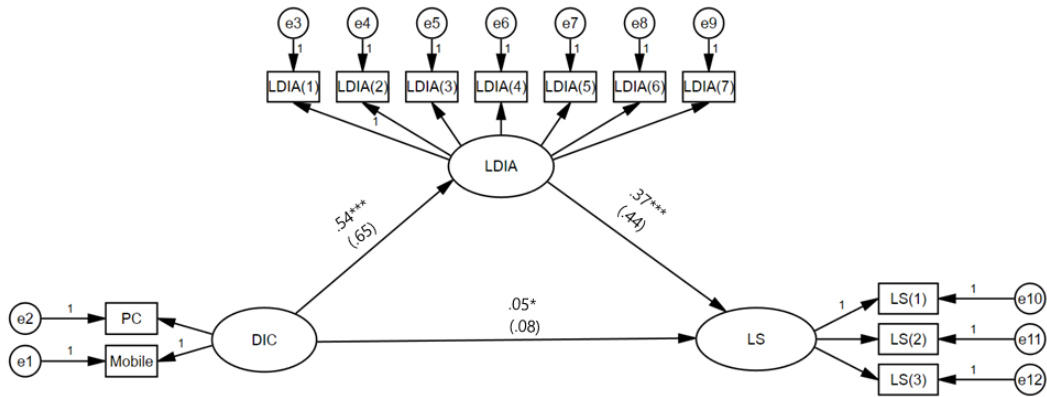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 3.5 다집단 검증

장애인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망 수준에 따라 디지털정보화역량,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 일상생활만족도의 구조적 관계에 차별적인 특징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망 수준에 따른 집단 구분은 중앙값을 기준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망 지각 집단, 낮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망 지각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낮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망 지각 집단의 적합도 지수는  $\chi^2$ (df=51, N=865)=419.061, p<.001, TLI=.922, CFI=.940, RMSEA=.091, SRMR=.037,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망 지각 집단의 적합도 지수는  $\chi^2$ (df=51, N=774)=477.417, p<.001, TLI=.902, CFI=.924, RMSEA=.104, SRMR=.052로 모형 적합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집단의 적합도 지수 또한  $\chi^2$ (df=102, N=1,639)=896.486, p<.001, TLI=.912, CFI=.932, RMSEA=.069, SRMR=.037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형태동일성이 확보된 모형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측정동일성 검증 결과  $\chi^2$ 값[ $\Delta\chi^2(9) = 19.004$  (p<.05)]은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지만, 모형의 적합도( $\Delta$  TLI=.006,  $\Delta$  RMSEA=-.002)는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측정동일성이 확보된 모형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DIC: Digital informatization capacity, LDIA: Level of digital informatization accessibility, LS: Life satisfaction  
 \* p<.05, \*\* p<.01, \*\*\* p<.001

Fig. 1. Structure model

구조동일성 검증 결과  $\chi^2$  값 차이가 없으며 [ $\Delta\chi^2(3) = 2.37(p>.05)$ ], TLI, RMSEA 값 차이( $\Delta TLI = .003$ ,  $\Delta RMSEA = -.001$ ) 또한 거의 없기 때문에, 3개 경로 전체를 고려했을 때 사회적 지지망 지각 수준에 따라 경로계수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개별 경로를 고려했을 때도 모든 경로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6. Fit indices for invariance verification

model	$\chi^2$	df	TLI	CFI	SRMR	RMSEA (90% CI)
Configural invariance	896.486 ***	102	.912	.932	.037	.069 (.065~.073)
Full metric invariance	915.490 ***	111	.918	.931	.038	.067 (.063~.071)
Structural invariance	917.862 ***	114	.921	.931	.039	.066 (.062~.070)

\* p<.05, \*\* p<.01, \*\*\* p<.001

Table 7. Result of multi-group comparison

Paths	Low 50		High 50		$\Delta\chi^2$	$\Delta df$
	b	$\beta$	b	$\beta$		
Digital informatization capacity → Level of digital informatization accessibility	.55***	.67	.49***	.60	1.95	1
Level of digital informatization accessibility → Life Satisfaction	.31***	.37	.33***	.43	.11	1
Digital informatization capacity → Life satisfaction	.05	.08	.02	.04	.39	1
All strains					2.37	3

\* p<.05, \*\* p<.01, \*\*\* p<.001

#### 4.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역량,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 일상생활만족도 간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망 수준에 따라 구조적 관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문제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모모형 분석 결과,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역량은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 일상생활만족도에 대한 정적인 직접효과가 나타났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보화 역량 보유 수준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이는 디지털정보화역량이 높을수록 PC 및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하여 문화, 경제, 교육, 여가생활,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의 많은 부분을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더 큰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구조모형 분석에서 주목해서 볼 점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역량은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을 매개로 일상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있다는 것이며, 디지털정보화역량이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보다 간접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이 매개변인으로 역할을 하는 것은 첫째,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사회관계 및 정보공유 서비스, 생활 서비스, 정보생산-공유 정도, 네트워킹, 사회참여, 경제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증가된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상생활만족도를 높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기존 연구 또한 인터넷 활동 과정이 중·고령 지체장애인

의 오프라인의 제한된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가시켜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며[5], 사회참여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하고 있다[20]. 둘째, 장애인의 여가생활 및 문화생활 만족은 삶의 만족도를 촉진하는데[3, 21-22], 디지털정보화활용에서 오프라인에서 제한될 수 있는 여가 및 문화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장애인의 지각된 자립생활능력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23], 오프라인보다 자기 통제력이 높을 수 있는 디지털 및 온라인 상황이 지각된 자립생활능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일상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여가생활, 문화생활,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참여가 가능한 접근성과 활용성이 높은 디지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디지털 기기 사용과 관련된 교육 시에도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사회관계 및 정보공유 서비스, 생활 서비스, 정보생산·공유 방법, 인터넷을 활용한 네트워킹 및 사회참여, 경제활동과 관련된 실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장애인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망 수준에 따라 디지털정보화역량,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 일상생활만족도의 구조적 관계에 차별적인 특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망 수준에 관계없이 디지털정보화역량,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은 일상생활만족도에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4]. 본 연구에서 활용한 실태조사 데이터는 장애인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망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했을 때 장애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망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망 수준에 관계없이 디지털정보화역량,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이 일상생활만족도에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장애인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망 수준에 관계없이 디지털정보화역량과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이 향상되었을 때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동안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한 많은 연구들이 장애인의 심리적 요인, 가족관계, 문화생활 만족도, 사회활동참여 등의 변인과의 관계에 집

중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 사회에서 중요한 디지털정보화역량,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이 어떤 구조적 특성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장애인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망 수준에 관계없이 디지털정보화역량,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은 일상생활만족도에 유사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지각된 사회적 지지망 수준과 관계없이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정보화역량과 디지털정보화활용이 중요함을 확인했다는 실제적 의의가 있다.

## 5. 결론

본 연구는 장애인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망 수준에 따른 디지털정보화역량,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 일상생활만족도 간 구조적 관계의 특징을 경험적으로 밝힘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실제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실태조사 문항의 한계 때문에 디지털정보화역량,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이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어떤 심리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지는 못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역량,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이 어떤 심리적 특성을 매개로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뿐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사회적 지지망을 구분하여 연구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사회적 지지망이 각각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1] J. Y. Hwang,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factors on life satisfaction in the disabled: A panel data analysis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Cognitive Enhancement and Intervention*, Vol.8, No.1, pp.71-88, 2017.
- [2] S. Y. Kim, B. I. Rho, "Individual/family/institutional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of the mentally disabled residing in community medical institutions",

- Journal of Regional Studies, Vol.26, No.2, pp.103-118, 2018.  
DOI: <https://doi.org/10.31324/JRS.2018.06.26.2.103>
- [3] L. S. Chon, H. J. Cho, "Analysis on styles of leisure activity style, enjoyment of culture activity and life's satisfac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The Journal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Vol.22, No.4, pp.151-164, 2018.
- [4] S. J. Park, S. W. Ahn, C. S. Shin, M. S. Kang, "An exploratory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on life satisfaction of person with hearing impairments", The Korean Society of Education for Hearing-Language Impairments, Vol.9, No.2, pp.109-135, 2018.
- [5] G. M. Park, M. A. Kim, "Effects of internet utilization on life satisfaction for the middle-aged and the older adults with physical disabilities: An analysis of the moderating effect of participation in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Vol.43, pp. 99-131, 2019.
- [6] H. S. Lee, S. H. Le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vel of digital informatization and satisfaction level of elderly people: Focusing on community, meeting, and community involvement activiti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7, No.2, pp.1-7, 2019.  
DOI: <https://doi.org/10.14400/JDC.2019.17.2.001>
- [7] B. H. Lee, U. Lee, R. Im, "The effect of computer education on internet job searching among a physically challenged person -Focusing the mediating effect of digital divide",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Vol.21, No.1, pp.39-58, 2011.
- [8] D. S. Jun, "Effects of the elderly computer/internet competence on life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Vol.29, No.3, pp.389-408, 2015.
- [9] H. S. Lee, S. H. Le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informatization level and policy activity satisfaction level of disabled person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6, No.4, pp.23-28, 2018.  
DOI: <https://doi.org/10.14400/JDC.2018.16.4.023>
- [10] Ministry of Science and ICT,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The report on the digital divide", NIA-RER-C-17004, 2017.
- [11] O. H. Kweon, J. W. Moon, "The influence of interpersonal rel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y on daily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18, No.6, pp.327-333, 2018.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18.8.6.327>
- [12] C. Y. Lin, T. C. Cheng, "Health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Evidence from Taiwan", Disability and Health Journal, Vol.12, pp.249-256, 2019.  
DOI: <https://doi.org/10.1016/j.dhjo.2018.10.008>
- [13] R. de la Vega, I. R. Molton, J. Miró, A. E. Smith, M. P. Jensen, "Changes in perceived social support predict changes in depressive symptoms in adults with physical disability", Disability and Health Journal, Vol.12, pp.214-219, 2019.  
DOI: <https://doi.org/10.1016/j.dhjo.2018.09.005>
- [14] S. S. Gu, "The effect of discrimination experiences on depression in individual with disabilities: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The Education Journal for Physical and Multiple Disabilities, Vol.61, No.3, pp.67-90, 2018.
- [15] M. S. Yoon, E. S. Yi,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between the disabilities acceptance and posttraumatic growth among people with acquired physical disability",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Vol.26, pp.55-74, 2014.
- [16] W. Lee, J. H. Lee, H. N. Le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sability identity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adjustment to colleg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social support", Special Education Research, Vol.10, No.3, pp.245-268, 2011.
- [17] J. H. Lee, S. K. Lee, "Social support as moderator of symptom and life satisfaction among persons with mental illness",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Vol.23, No.1, pp.51-63, 2016.
- [18] E. M. Yeon, "Relations among parental education involvement, children's career maturity, internet addiction, and school adjustment: Difference analysis of experience of victimiza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8, No.21, pp.433-456, 2018.
- [19] R. B. Kline,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3rd ed.)", New York: Guilford Press, 2011.
- [20] G. S. Lee, "A study on the longitudinal change pattern and the predictor factor of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Focused on social capital including network and social participa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45, No.2, pp.375-402, 2014.
- [21] S. K. Park, S. W. Lee, S. M. Kim, "The effects of cultural and leisure activities on maintaining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daily-life satisfaction among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discrimination by disability",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Vol.40, pp.123-149, 2018.
- [22] H. J. Nam, H. J. Lee, "Correlates of the participation of leisure activities, leisure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among disabled people",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Vol.21, No.1, pp.121-140, 2017.  
DOI: <http://doi.org/10.16884/JRR.2017.21.1.121>
- [23] E. C. Seo, J. K. Baek, "A path model of discrimination experience and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Mediating effects of stress, independent living, and physical activity through phantom model",



Korean Journal of Adapted Physical Activity, Vol.26, No.4, pp.109-125, 2018.

- [24] Y. K. Cho, Y. M. Baek, B. Y. Kim, "How and why does SNS-based interaction promote perceived social support?: Focusing on types of SNS relationship",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Studies, Vol.22, No.2, pp.5-31, 2014.
- 

연 은 모(Eun Mo Yeon)

[정회원]



- 2007년 5월 : 버지니아 주립대 (Univ. of Virginia) 국제관계학 학사
- 2009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방법 석사)
- 2014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진로상담, 실수기반학습, 학습동기

---

최 효 식(Hyo-Sik Choi)

[정회원]



- 2006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석사)
- 2013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16년 9월 ~ 현재 : 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심리검사, 학습전략, 인출